

## 냉전과 소설의 형식, ‘(경남)진영’의 장소성과 사회주의자 서사 (1)\* - 김원일 소설의 아버지/아들 서사를 중심으로

이 선 미\*\*

### 차 례

- |                                    |   |
|------------------------------------|---|
| 1. 탈/냉전의 정치와 김원일 소설의 아버지/아들 서사     | 3. 『노을』 이후, 증언불가능성을 삭제한 기억과 삭제된 기억을 복원하는 개작 |
| 2. 『어둠이 혼』, 무덤없는 자의 아들과 증언불가능성의 미학 | 4. 나오는 말                                    |

### 국문초록

김원일은 좌익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한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후기나 서문을 달고 빨갱이, 빨치산, 사회주의자를 소설에 등장시킨 작품을 여러 편 쓴다. 『어둠이 혼』, 『노을』, 『불의 제전』, 『아들의 아버지』 네 편의 아버지/아들 서사가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다룬 소설이라면, 『겨울 골짜기』나 『푸른 혼』은 빨치산,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혹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받기 위한 마음으로 창작한 소설이

\* 이 연구결과물은 2019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라고 할 수 있다. 1966년부터 시작된 김원일의 작가로서의 창작과정에는 이 아버지/아들 서사가 강렬한 한 축을 형성한다. 이 소설들은 빨치산, 사회주의자였던 한 인간의 입체적인 모습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작과 재창작, 혹은 개작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도 아버지에게 ‘아버지(인간)’의 모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 서사의 창작과 개작과정은 김원일 스스로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김원일이 성실하게 꾸준히 아버지 서사를 지속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아들, 자신의 서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검열이라는 냉전사회의 창작 구조를 비겁한 방식으로 수용하는 극히 현실적인 생존의 시간이었다. 좌익 2세의 운명이며, 현실일 것이다. 김원일은 모욕적일 수도 있는 빨갱이 아들이로서의 삶을 부정하거나 벗어나지 않고 탈/냉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삶의 영역을 착실하게 넓혀가면서 아버지/아들 서사를 진실에 육박하도록 확대해나간다.

이 서사적 과정의 완결점은 2013년에 발표한 『아들의 아버지』이다. 이 소설은 한국사회의 탈/냉전의 정치가 감각된 결과물인 듯이 사회주의자, 빨치산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아버지의 일대기 같은 작품이다. 이 논문이 살펴본 『아들의 아버지』 이전의 과정은 이 작품으로 귀결되어 ‘아버지/아들 서사’를 완성하는 계보를 구성한다. 검열이 일상화된 냉전사회에서 빨갱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 담겨진 ‘기억 서사’는 냉전사회가 만들어낸 문학적 성과이다. 검열과정에 타협하는 문학적 선택까지도 지난한 분단 작가의 삶으로 해석되는 김원일의 아버지/아들 서사는 냉전사회와 소설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냉전, 탈냉전, 김원일, 아버지/아들 서사, 진영, 『어둠의 혼』, 『노을』, 『아들의 아버지』, 증언불가능성, 사회주의자

## 1. 탈/냉전의 정치와 김원일 소설의 아버지/아들 서사

1966년 등단한 소설가 김원일이 1973년에 발표한 『어둠의 혼』은 이 작가의 대표작이다. 한국전쟁 직전 ‘빨갱이’로 활동하다가 처형당하는 아버지를 둔 가족의 이야기를 어린 아들의 시선으로 묘사한 소설이다. 1972년 유신시대가 시작되고 정치적 억압이나 사회적 통제가 더 혹독해 지던 시절에 발표된 이 소설은 한국전쟁의 학살 경험이 ‘침묵’의 형식으로 잠복해있던 냉전사회를 자극하면서 김원일의 대표작이 된다. ‘빨갱이 아버지가 구속되고, 어머니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는 아버지가 처형당해서 지서 뒷마당에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그 주검 앞에서 아들조차 애도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을 극적 감정의 노출없이 어린 아들의 시선으로만 담아낸 소설이다. 어린 화자라는 소설의 장치는 드러난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은 사실까지도 짐작하게 하는 의미구조를 만들어내고,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에서 불안하게 생존 투쟁에 놓여진 빨갱이 가족의 참혹한 삶을 상상하게 한다. 이 한 편의 소설은 ‘빨갱이 아버지와 이어진 아들의 서사’라는 강렬한 의미를 구성하면서, 김원일을 상징하는 문학적 표상으로 자리잡는다.<sup>1)</sup>

이후 1978년 김원일은 빨갱이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전면화한 장편소설 『노을』을 발표하면서 빨갱이 아버지/아들의 서사를 본격화한다. 1970년대 초반의 현재 시점과 1948년 과거 시점이 교차되는 방식으로 ‘빨갱이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삶이 펼쳐진다. 그리고 『어둠의 혼』을 발표한 지 40년 만에 장편소설 『아들의 아버지』를 쓴다. ‘빨갱이 아버지

1) 『어둠의 혼』은 빨갱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공공연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김원일이 사회주의자 2세 작가로 명명된 대표작이 된다. 한수영은 아버지가 월북한 경우에 해당하는 김원일, 이문열, 아버지가 학살된 경우에 해당하는 이문구, 김성동을 ‘월북자 2세 작가’ 또는 ‘분단 2세대’로 명명하여 아버지 서사의 계보를 개념화한 바 있다. 한수영, 『분단과 전쟁이 낳은 비극적 역사의 아들들』, 『소설과 일상성』, 소명, 2000. 참조

서사'의 완결관에 해당하는 소설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김원일은 40년 동안 빨갱이 아버지에 묶여있는 아들의 이야기에 매진해온 셈인데, 이 중간 시기에 작가 스스로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밝히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 완성한 7권짜리 장편소설 『불의 제전』까지 포함시켜 생각하면, 창작 기간 내내 아버지 이야기를 한 줄기로 엮어내 듯 구성해온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네 편의 빨갱이 아버지/아들의 이야기로 김원일 소설의 한 계보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사회주의자(빨갱이) 아버지 서사를 창작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빨갱이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인물구조가 전면화된 『노을』은 1978년 초판을 내고 1987년과 1997년에 개작본을 내는데, 아버지의 형상이나 좌익활동,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서술 등 이념적인 부분을 상당히 수정하여 출간한다. 199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탈냉전의 정치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듯한 개작으로 평가된다.<sup>2)</sup> 같은 이야기지만, 이념적인 부분을 상당히 개작함으로써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게 만든 소설이다. 직접 아버지의 형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며

2) 김요섭은 김원일의 『노을』이 빨갱이 아버지를 백정으로 설정한 것이나 모범적인 전향자 배도수, 그리고 새마을 운동에 의해 문명화된 고향마을의 풍경 등을 통해 반공주의의 논리를 구성하고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반공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평가한다. 이 반공주의적 설정은 김원일이 반공주의를 내면화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검열 구조 속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의 양상이며, 그런 의미에서 과잉 적응의 태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논한 바 있다. 이런 인정투쟁의 양상은 좌익 2세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일이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김원일은 “반공국가의 논리에 의존한 아버지 재현이 가진 한계를 불편하게 자각하면서 소설을 통한 형상화를 계속이어갔다”고 분석하며, “이는 반복되는 개작을 통해 당대의 담론 확장을 따라 가고 그 틈을 넓혀가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이는 김원일의 아버지/아들 서사를 냉전사회 소설의 형식적 변주로 해명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관점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런 논리적 토대 위에서 『노을』이나 『겨울 골짜기』의 개작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김원일 연구분야를 한 단계 진전시킨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김요섭, 『김원일·현기영 소설의 확산 서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7, 146-156쪽 참조.

주인공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밝힌 『겨울 골짜기』 역시 작가의 아버지 서사로 분류할 수 있다.<sup>3)</sup> 거창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룬 『겨울골짜기』는 1987년 민주화로 인해 붓물처럼 터져나온 한국전쟁기 학살 사건 진상규명 활동과 같은 정치적 흐름을 반영한 소설로 평가되며,<sup>4)</sup> 1993년, 2004년, 2014년 개정판을 내면서 개작을 한다. 이 판본들 역시 『노을』처럼 정치적인 변화를 수용하면서 작품 속의 사회주의자의 형상이나 빨치산의 산생활이 변화하는 식으로 개작이 이루어진다.<sup>5)</sup> 아버지의 모습을 최대한 형상화하고자 오랜 기간 많은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가며 완성한 『불의 제전』도 1983년, 1985년 미완으로 발표된 초판을 대거 수정하여 1997년 완성본을 출간한다. 이 개작의 과정은 단편소설 『어둠의 혼』 이후 『노을』, 『불의 제전』, 『겨울 골짜기』에 이르는 과정을 두 배로 확장해서 구성해도 될 만큼 ‘좌익’ 활동으로 월북한 사회주의자 아버지의 삶을 지속적으로 창작한 하나의 과정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맨 끝자리에 완결판으로 보이는 『아들의 아버지』를 2013년에 발표한다.

마지막 작품인 『아들의 아버지』를 제외한 소설들은 자전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깔고 있지만 소설적 허구라는 형식에 충실하게 상상적으로 구성되었다. 고향인 진영이 구체적인 장소로 등장하더라도 인물의 설정이나 상황은 자전적인 사실들이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아들의 아버지』는 모든 지명이나 인명을 사실 그대로 쓰고 있으며, 인물의 정황이나 행동은 사실적 고증이 되도록 역사적인 기록이 대거 활용된다.

3) 2004년 김원일은 이룸 출판사를 통해 『겨울 골짜기』 개작본을 출간하는데, 이 판본 맨 뒤에는 “불러보고 싶은 말, 아버지”라는 제목을 단 글이 실려있다. 거창민간인학살 사건을 소재로 하여 산간 마을의 주민들과 산으로 들어간 빨치산들이 생활상을 그린 소설 『겨울 골짜기』가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월북한 아버지의 삶을 기리는 소설임을 이 후기로 드러낸 것이다. 김원일, 『겨울골짜기』, 이룸, 2004, 446-447쪽 참조.

4) 김명훈,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문학적 증인’의 미학과 윤리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8 참조.

5) 박찬모, 『『겨울 골짜기』의 개작 양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41호, 2010 참조.

르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실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쓰였다. 심지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객관적인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작가는 이런 다큐멘터리적 서술이 소설로서의 자질 결여로 비판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소설이 역사서와 같은 사실 기록과 자전적인 요소, 허구적 장치를 적절히 섞어서 활용한 ‘장편 소설’이라고 강조한다. 아버지 개인의 삶이지만, 객관적 사실 논증을 거쳐 진실임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진솔한 회고록 자체로 재단하지는 말아주기를 바란다”<sup>6)</sup>는 당부를 덧붙이며, 소설임을 강조한다. 이 작가의 말까지 읽고나면, 역사서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결국은 김원일이 가장 많이 다루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점은 확인해지지만, 그렇다면 왜 역사기록을 방불케하는 사실기록의 방법을 전면화하는지를 더 생각하게 된다.

아버지의 삶을 사실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해방과 전쟁기의 시대적 공간(진영)을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르포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아버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맥락은 상상력과 허구로 채워져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 이 소설을 창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허구적 창작으로서 소설이 아닌 방식을 활용한 소설, 이 형식적 아이러니가 한 개인의 정체성으로서 ‘아들의 아버지’임을 구성하기 위해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해석한다면 어떠할까? 실물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듯이 우회로를 돌아가더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냉전사회에서 빨갱이의 자식이 아버지를 실체화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집요하게 개작을 거듭하면서 아버지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창작의 과정은 그 자체로 김원일 자신의 삶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결국 김원일의 아버지 기억, 빨갱이 아버지 기억은 아버지의 삶을 거쳐 작가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냉전과 탈냉전의 자장 속에서 불안정하게 걸쳐있는 한국사회와

6) 김원일, 작가의 말, 『아들의 아버지』, 382쪽.

소설의 관계를 함축하는 서사로 평가될 직하다.

『어둠의 혼』에서 『아들의 아버지』에 이르는 아버지/아들의 서사에는 이렇듯 소설의 사회적 맥락이 집약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냉전과 소설의 관련성을 논의할 수 있게 한다. 이 서사적 과정은 김원일 문학의 시계적 구성에 해당하며 한국사회 냉전 구조와 소설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 서사적 과정의 초반기에 해당하는 냉전기 아버지/아들 서사의 양상을 통해 냉전사회에 대응하는 김원일 문학의 사회적 관계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아들의 아버지』에 이르는 전사(前史)로서 아버지/아들의 서사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 2. 『어둠의 혼』, 무덤없는 자의 아들과 증언불가능성의 미학

『어둠의 혼』은 아직 사회적 관계를 헤아리지 못하는 어린 나이인 열살 무렵에 전쟁을 겪은 소년 화자의 전쟁 경험담이다. “아버지가 잡혔다는 소문이 온 장터 마을에 콧 깔렸다”<sup>7)</sup>로 시작하는 소설은 ‘빨갱이 짓’을 하다가 쫓기듯이 월북한 아버지를 둔 작가의 자전적인 사실이 바탕이 된 소설이다. ‘빨갱이 짓’을 하느라 가족을 내팽개치고 가족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은 무책임한 아버지를 평생 증오했던 어머니는 장남인 김원일이 아버지처럼 되는 것을 경계하며, 모진 매질로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성실한 가장이 되도록 훈육했다.<sup>8)</sup>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찍혀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없었던 김원일 역시 성실한 가정으로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정치와는 거리를 두며 살았고, 그런 이유로 작품

7) 김원일, 『어둠의 혼』, 『연』, 나남출판, 1985, 77쪽.

8) 김원일, 『허위단심 - 내가 살아온 길』, 『사랑하는 자는 괴로움을 안다』, 문이당, 1991 참조.

활동 초기에는 이념이나 사상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sup>9)</sup> 그렇지만 고향 마을 진영에서 지낸 유소년기의 시간은 작가인 김원일에게 강렬하게 창작적 충동을 일으키는 경험이었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는 부재하는 상태로 그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였다.<sup>10)</sup> 습작기부터 써서 간직하고 있던 부분 중 단편소설 분량을 덜어내어 완성한 『어둠의 혼』은 1973년 이문구가 주간으로 있던 『월간문학』에 게재되며, 문단의 주목을 받아서 『문학과 지성』에 재수록되고, 마침내 김원일의 출세작이 된다. 줄곧 정치적인 문제를 외면하고자 했으며,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고자 했던 김원일은 이 작품을 계기로 용기를 내어 아버지 이야기의 계보를 만들어나간다. 그것은 고향마을 진영의 이야기이며, 한국전쟁기 사회주의자의 이야기이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한 시기에 십대를 보낸 사람들이라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있기 힘들며, 그 경험은 어린 십대의 나이로서는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특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일 정도로 한국사회의 그 세대들 대다수가 겪은 고통이기도 한 것이었다.<sup>11)</sup> 그렇지만 김원일의 전쟁경험은 ‘빨갱이의 아들’이라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낙인과 관련된 탓에 더 혹독한 경험이었다.<sup>12)</sup> 자전적 요소에서

9) 김병익, 『핏빛에서 가을별으로 - 김원일 문학의 진전』, 김원일, 『연』, 나남출판, 414쪽 참조.

10) 김원일, 『허위단심 - 내가 살아온 길』, 앞의 책, 196-197쪽 참조.

11) 김주연, 『모자관계의 소외/동화의 구조』, 『마당깊은 집』, 문학과지성사, 1988, 309-310쪽 참조. 한국전쟁의 경험은 가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 경험이며 기억이다.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뿐만 아니라, 이산의 경험, 국가권력의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은 특별한 경험과 기억을 만든다. 전쟁이 얼마나 전사회적, 전국민적인 것이었는가는 1983년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이 1년 넘게 폭발적 현상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반에 걸친 세대들의 작품활동에는 이 전쟁기의 기억이 근원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작가가 아니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전쟁경험은 죽을 고비를 넘긴 극한의 경험으로 기억되는 전사회적 사건이다. 이 기억을 중심으로 한 세대를 정의할 수 있다.

12) 유소년기인 10대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들이 이십대 후반이나 삼십대 초



시작된 『어둠의 혼』은 열 살 어린아이가 겪은 빨갱이 가족으로서의 고통을 다름으로써, 빨갱이 가족의 고통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상황’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빨갱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폭력, 공권력의 행사방식에 내재된 폭력성과 잔인성은 어린아이의 시선에 포착됨으로써 한국전쟁이 가져온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느릅나무 밑, 거기에 가마니에 덮인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모부가 걸음을 멈춘다. 가마니 밑으로 발목과 함께 닳아 빠진 농구화가 비어져 나와 있다. 그러나 정강이 부근부터 머리까지 가마니에 덮여 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이모부의 허리를 꼭 잡는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린다.

“이거다. 이게 니 아버지의 시체다. 똑똑히 보았제. 앞으로는 절대로 아버지를 찾아서는 안된다. 알겠제?” 이모부는 말한다. 그리고는 내 손을 놓고 가마니를 훌쩍 뒤집는다.

아, 나는 볼 수 있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나는 아버지의 처참한 얼굴을. 반쯤은 피에 가려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얗게 바래버린 찌그러진 얼굴, 죽은 아버지의 눈은 부릅뜨고 있었다. 턱은 퉁퉁 부어 있고, 입은 커다랗게 벌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저렇게 되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만 같다. 낡고 검은 국방복의 저고리 단추가 풀어진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의 가슴, 나는 어릴 때 그 가슴에 안겨 얼마나 재롱을 떨었던가!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가슴은 그 무서

---

반이 되는 1970년대 초반에 대거 작가로 입문하여 1970년대 ‘분단문학’이라고 명명되는 문학을 이끄는 작가가 된다. 1942년생 김원일, 윤흥길을 비롯하여 1940년생 전상국, 1941년생 문순태, 현기영, 이문구, 1943생 황석영까지 유소년기에 한국전쟁을 경험한 작가들은 원체험으로 간직한 전쟁기의 경험을 ‘기억’의 방식으로 소설화한다. 황석영의 『한씨연대기』가 1972년에 발표되며, 이문구의 『관촌수필』 1972-1973년, 김원일의 『어둠의 혼』 1973년, 현기영의 『아버지』, 『순이삼촌』, 윤흥길의 『장마』, 박완서의 『부처님 근처』, 『카메라와 워커』, 이병주의 빨치산 소설 『지리산』이 1972년부터 세대지에 연재되기도 한다. 이 소설들은 1950-60년대 한국전쟁의 경험을 반공이념을 주제화하는 방식으로 한국전쟁의 경험을 다룬 소설들과는 달리 좌익 2세의 경험이나 빨갱이 가족, 혹은 부역자로서 경험한 전쟁의 기억을 다룬다.

운 보랏빛으로 변하고 말았다. 축 늘어진 어깨와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두 팔, 아버지는 분명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  
“죽다니, 저렇게 죽고 말다니!”<sup>13)</sup>

『어둠의 혼』의 마지막 부분이다. 어린 갑해는 아버지의 시체가 버려지  
듯이 가마니에 덮여 지서 마당 어두운 구석에 놓여진 것을 보고서 두려  
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것들을 향한 분노를 느낀다. 지서 뒷마당에 가마  
니에 덮인 채 버려지듯 있는 공포스러운 시체는 어릴 때 안겨서 재롱을  
떨었던 아버지의 가슴과 어깨와 두 팔을 그대로 갖고 있다. 버려지듯 내  
던져있는 시체는 아버지였고, 그 몸뚱아리의 감각적 기억을 갖고 있는  
아들 갑해는 “서른 일곱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아버지를 생각하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떠다. 강둑 길을 같  
이 걸으며 청개구리를 손에 올려놓고 살갑게 이야기를 나누던 아버지,  
성못길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던 아버지인데, 그가 바로 잔인하게 총  
살당한 채 가마니에 덮여 버려지듯 있는 아버지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서 앞에 초소 순경은 “킬킬거리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자신에게는 아버지같은 존재였던 이모부조차도 “뿌드득 이를 갈  
며”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아버지를 보여줄테니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이 모든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했던 일들이 수수께끼인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의 죽음을 비웃고 당연한 처사라는 듯 여기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수수  
께끼가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문제적 상황이다. 게다가 자신이 가장 의  
지하는 이모부조차 아버지의 주검을 한낱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아들인  
갑해가 아버지의 주검 앞에서 슬퍼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상황 때  
문에 깊이 절망한다. 이 충격이 빨갱이 아버지 서사의 시작점이다. 아버

13) 김원일, 『어둠의 혼』, 『연』, 나남출판, 97-98쪽.

지의 주검 앞에서 애도할 수 없는 상황, 무덤없는 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어린 갑해가 미처 해석하지 못한 갑해의 현실이었으며, 가장 최하위의 사회적 낙인이었다.<sup>14)</sup>

사회적 처벌의 대상이 될 만큼 마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sup>15)</sup> 한 아버지의 아들인 소년 갑해는 비인간으로 전락한 시체를 앞에 두고 이 당연한 애도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아버지가 한 ‘인간’임을 주장한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빨갱이 아버지의 죽음과 그 주검이 버려지듯이 처리되는 과정이 어린 아들의 시선에 의해 전달됨으로써, 이 죽음에 가해진 폭력적 구조는 선명하게 부각된 셈이다. 아직 사회의 논리 속에서 사유하지 못하는 어린 아들의 시선에 포착된 ‘빨갱이’의 죽음은 그저 한 인간, 어떤 아이의 아버지인 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어찌보면 당연한 사실이 새삼 환기된다. 이 당연한 논리 때문에 소년이 처한 슬픔과 분노가 극대화되지만 소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상황, 즉 분노와 무력감의 극심한 간격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도 드러난다. 이로써 한 소년의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빨갱이일 수 있다는 것을 공론화한 셈이 되었고, 전쟁의 비극을 고조시키면서 동시에, 반공국가의 공식기억에 대항하는 의미까지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즉 빨갱이를 비국민, 비인간으로 여겼던 냉전사회의 빨갱이 인식을 조금이나마 의심하고 부정하는 계기가 된다. 좀 비약하자면, 반공문학의 형식으로 한국전쟁의 경험을 다루었던 한국전쟁 서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원일의 아버지 서사는 빨갱이에 대한 시선을

14) 김요섭은 한국사회의 냉전 질서 속에서 ‘무덤 없는 자’에 내포된 사회적 낙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의 상상력을 흥미롭게 해명한다. 한국전쟁의 학살 경험과 그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금지된 ‘무덤 없는 자’라는 상징이 문학을 통해 구성됨으로써, 애도와 연대가 가능해지는 지점에 주목한 연구이다. 김요섭, 『무덤 없는 자들 - 임철우·문순태 소설의 매장 모티브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82집, 2020 참조.

15) 이영진 외, 『애도의 정치학』, 길, 2017 참조.

문제제기 하면서도, 정치적 견해를 감추는 서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실재에 가깝게 그려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적 혹은 당대적 의미는 김원일의 『어둠의 혼』 만이 일구어낸 성과는 아니다. 1970년대 초반에 대거 등장하는 분단문학의 작가들이 이루어낸 문학적 결과물이다. 1970년대는 1972년 유신헌법이 반포되고 긴급조치가 발효됨으로써 독재정치의 양상이 강화되지만, 한편에서는 국제적인 탈냉전의 정치 변화와 남북공동성명 발표 등의 국내적 정치상황 등이 남북관계의 긴장구조를 다소 변화시킨다.<sup>16)</sup> 비록 남북공동성명 발표는 잠깐의 해프닝이 되었지만, 사회적인 ‘해빙 무드’는 일상적 감각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분단이 오래 가선 안된다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sup>17)</sup>으며, 마을 창고에 붉은 페인트로 ‘김일성 찢어죽이자’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을 정도로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터부시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탈냉전의 무드는 한국 사회에서 감각정치의 변화로 이어져, 서서히 일상의 미적 감각, 미학적 변화<sup>18)</sup>를 추동하였다.

1972년에 발표된 이문구의 『일락서산』에는 빨갱이 아버지로 인해서 가족이 몰살되었던 이문구의 가족사가 사실 그대로 서술되고 있으며, 제주 4.3의 역사적 경험을 가족사로서 재현한 현기영의 소설들도 1970년대

16)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동서 냉전 국면의 긴장완화와 관련된 논의는 이봉범, 『냉전과 월북, (남)월북 의제의 문화정치』, 『역사문제연구』 37호, 2017.4 참조.

17) 문순태, 『상처의 기억과 공동체적 삶』, 현기영 외, 『기억과 기억들』, 쌤크스마트, 2017, 110-111쪽 참조.

18) 서영채는 신경숙의 『외딴방』이 1990년대적인 작품으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1980년대의 미학, 혹은 감성구조의 변화와 연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문화저변에 작동하는 미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문학작품의 감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1970년대 초중반의 문학이 반공주의 국면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논리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영채, 『신경숙의 『외딴방』과 1990년대의 마음』, 『문학동네』, 2017.봄, 594쪽 참조.

초중반에 발표되기 시작한다. 1970년에 등단한 박완서는 1972년 1973년 연달아 좌익 가족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비국민으로 강등될 지도 모른다는 일상적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의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좌익 가족의 자전적 사실을 드러낸다.<sup>19)</sup> 좌익 2세는 아니더라도 황석영은 전쟁 통해 홀로 남으로 내려온 월남민의 몰락과정을 그린 『한씨연대기』를 1973년에 발표한다. 게다가 지리산 인근 하동 출신인 이병주는 지리산으로 들어간 빨치산을 다룬 대하소설 『지리산』을 1972년 『세대』지에 연재한다.<sup>20)</sup> 1972년부터 3-4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빨갱이 가족사가 다루어진 소설들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 찍힌 채 항상 불안하게 살아가면서 정치를 외면하고 살아온 김원일조차 감각 정치의 변화에 따른 미학의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문구의 뜻심으로 『월간문학』에 발표되는 일이 쉽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sup>21)</sup> 빨갱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는 김원일의 소설은 한국사회의 정치가 변하고 그에 따른 미학적 변화가 서서히

19) 박완서의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돌니』(1972), 『부처님 근처』(1973)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 이 소설은 유신시대의 정치적 폭력이 가장 극심했던 72년부터 78년까지 연재되다가 1985년 완간된 소설이다. 지리산 빨치산의 삶이 지적이고 정의로운 이상적 인물의 삶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해방 전 식민지 시기의 독립운동의 의로운 이상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황석영은 『지리산』을 읽으며 이 소설이 1970년대에 어떻게 연재될 수 있었는지 감탄한다.(황석영, 『조국은 없다, 산하가 있을 뿐이다』, 『황석영의 명단편 101』4권, 문학동네, 2015, 204쪽 참조) 월북까지 감행했던 한 작가가 놀랄 정도로 1970년대 상황과 빨치산을 긍정적으로 다룬 소설들의 관계는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다. 이 역시 1972년 이후 탈냉전의 분위기와 연관되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봉범, 『냉전과 월북, (남)월북의제의 문화정치, 역사문제연구 37호, 2017 참조.

21) 황석영은 김원일의 소설 『어둠이 혼』을 해설하는 글에서 김원일의 아버지 서사에 관해 이문구와 나눈 대화를 인용한 바 있다. 좌익으로 죽거나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둔 '아버지없는 자식들'의 아버지 서사와 관련되어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를 기억하는 김원일을 언급한다. 황석영, 『질은 보라색 하늘』,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101』4권, 문학동네, 2015, 340쪽 참조.

생겨나는 틈에서 김원일의 욕망을 실현한 구체적인 ‘실물’<sup>22)</sup>이었다.

아버지의 시체는 버려져있고, 이모부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며, 파출소의 순경은 아버지의 죽음을 낱낱거리며 전해주는 이 사태 앞에서 아들 갑해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를 외면하고 돌아선다. 이 모든 것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두려워서 증언할 수 없는, 이 봉인된 침묵의 영역이 미학적 성취의 지점이다.

빨갱이 아버지의 버려진 시체를 마주하는 일은, 아버지의 시체를 보고 그 주점의 비참함 때문에 한번,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또 한번 충격을 받았던 무거운 사건이다. 그리고 빨갱이를 물어준 것도 죄가 되는<sup>23)</sup> 반공국가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버려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던 기억은 ‘증언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봉인된 기억이라는 트라우마를 만든다. 이 충격과 트라우마와 분노의 복합적인 얽힘 속에서 기억의 정동이 구성된다.<sup>24)</sup> 증언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미학의 가능성이 생겨나는 순간이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증언할 수 없다는

22) 문학작품이 창작되어 한 사회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실물’로 본 것이다. 하나의 작품이 창작되어 유통된다면, 그것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사회의 담론장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실물’로 표현한 것이다. 모든 문학은 창작되어 유통되는 순간, 실물적 가치를 지니며, 사회적 영향관계 속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23) 1960년 4월 혁명 이후 한국전쟁 시에 학살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위령비를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유족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재판정에서 “내 아버지 뼈 가져다 묻는 게 무슨 죄냐”라고 묻는 피고인의 말에 검찰관은 “빨갱이를 물어준 게 죄다”고 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성훈, 『가면권력』, 후마니타스, 2014, 319쪽 참조.

24)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된 개인들을 애도하는 문제는 증언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지만, 증언할 수 없는 정치적 맥락이 애도를 복잡한 양상, 혹은 대결구도 속에서 불가능하게 만든다. 애도와 정동의 관련성을 문학작품을 통해 논의한 연구로는 김미정, 『소년은 왜 꽃핀 쪽』으로 가라고 말하는가 -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 <소년이 온다>가 놓인 자리, 『민주주의 증언 인문학』, 알피, 2004, 황정아, 『결을 거슬러 역사를 술질하는 문학』, 『안과밖』, 2015.4 참조.

것은 1970년대 한국사회의 반공 검열의 현실이었지만, 이 ‘기억하고 있지만 증언할 수 없음’의 상황은 오히려 미학적 가능성을 만들어낸 것이다.<sup>25)</sup> 『어둠의 혼』은 예상치 못하게 성공한 기획이 될 수 있었다.<sup>26)</sup>

빨갱이 아들로서 잔인하고 혹독한 세월을 살아온 김원일은 『어둠의 혼』에 쏟아진 호평으로 인해 처음으로 공적 사회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아버지를 ‘인간’으로서 공공연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작가 김원일에게 아버지의 기억을 확장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sup>27)</sup> 이 용기가 힘이 되어 빨갱이 아버지를 전면화시킨 『노을』을 발표한다. 『노을』은 비로소 우리 민족의 분단에 주목하는 시도로서<sup>28)</sup> 김원일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작품이다.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주민들이 편을 나누어 서로 반목하게 되는 전쟁 상황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한 기획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빨갱이 아버지의 기억을 공공연하게 풀어놓았다는 점에서는 성공이지만, 1978년 한국사회의 냉전질서에 부합하는 빨갱이 기억으로 ‘조울’했다는 점에서는 ‘반공’을 승인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25) 황정아, 위의 글 참조.

26) 류보선, 『어둠에서 제전으로, 비극에서 비극성으로』, 『작가세계』, 1991.여름 참조.

27) “이 단편을 발표하고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어, 그해 만큼 일곱 편의 소설을 썼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썼”던 계기가 된 작품으로 회고한다.(김원일, 『허위단심 - 내가 살아온 길』, 『사랑하는 자는 괴로움을 안다』, 문이당, 1991, 213쪽)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상처를 건드려 보고 나아가 그것과 정면으로 맞섬으로써 자신이 내적 구원을 시도할 계기를 찾”(김병익, 앞의 글, 414쪽)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작품이 된다.

28) “장편소설 『노을』부터 나는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의 역사, 즉 분단 문제를 내 문학 속의 큰 줄기로 끌어들었다. 우리 가족사의 한 부분이기도 한 해방과 육이오 전후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내 글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힘을 얻게 되지 않았나 싶다.” 김원일, 위의 글, 214쪽.

### 3. 『노을』 이후, 증언불가능성을 삭제한 기억과 삭제된 기억을 복원하는 개작

『노을』은 고향 진영을 떠나 서울에서 살고있는 주인공 갑수가 작은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는 삼일 간의 이야기이다. 고향을 떠난 후 처음 방문하는 귀향길로 시작된다. 「어둠의 혼」은 유년기에 아버지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고향 마을에서의 삶을 전면화시켰다면, 『노을』은 서술상황인 현재 시점에서 과거 어릴 적 고향마을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좌우 대립을 둘러싼 마을 내부의 전쟁을 기억하는 서사이다. 진영이라는 실제 지명이 그대로 등장하며, 실제 있었던 일인 듯이 그려진다. 전쟁터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안에서 전선이 형성되어 학살과 보복 학살, 부역으로 인한 편나누기를 일삼던 한국전쟁의 경험을 다룬다.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또는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전쟁 시기 학살사건 관련 사실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삼팔선이 무너지면서 인민군대가 남쪽으로 밀려내려오는 동안 중부권 이남에서는 보도연맹원의 예비검속이 본격화되었고, 국군이 후퇴하면서 예비검속된 수많은 민간인들은 재판 과정도 없이 학살당한다. 또 48년 남북한에 각기 독립 정부가 세워지면서 빨치산으로 활동한 많은 남로당원들이 지리산 인근 산악 마을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이어오기도 했다. 1950년 6월 25일 이후 중부권 이남의 마을들은 시시때때로 전선이 바뀌는 상황을 겪으며 살아남기 위해 저쪽 편을 들기도 하고, 이쪽 편을 들기도 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어느 편이 되는가가 우연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수시로 통치권력이 바뀌는 전쟁 상태를 일상적으로 겪으며 생계를 꾸리고 살아남아야 했던 민간인들에게 ‘부역’의 문제는 항상 겪는 삶의 문제였고, 친족 관계로 이루어진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속사정을 보호해 가며 같이 생존하는 삶이 다반사였다.<sup>29)</sup> 그렇게 전쟁은 3년이라는 긴 시



간동안 지속되었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궁지에 몰린 군대는 무차별 학살을 일삼기도 하고, 그에 대한 보복학살이 맞대응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한편으론 마을의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포용적으로 양편의 중재에 나서 잔인한 학살과 보복 학살의 위기를 무사히 넘긴 경우도 있었다.<sup>30)</sup> ‘마을로 간 한국전쟁’이라는 연구 주제가 생겨날 정도로 마을 내부의 전선은 농촌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난도질하였으며, ‘툽질 전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 방식은 무차별적이고 가혹했다.<sup>31)</sup> 1970년대에 마을에서 겪은 한국전쟁의 양상을 소설화한 전상국, 이문구, 김원일, 그리고 1980년대에 이런 상황을 소설로 발표한 윤홍길, 문순태, 임철우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 특히 분단문학으로 명명된 소설들은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동네 사람들끼리 겪은 한국전쟁의 실상을 서사화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sup>32)</sup>

사실, 한국전쟁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의 문제는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문학의 중요한 소재였다. 전쟁문학, 전후문학, 전선문학 등의 용어가 웅변하듯이, 전쟁은 한국사회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절대적 사건이었고, 이 절대적인 재난의 상황을 감내하는 인간 군상은 소설의 주된 소재이며, 주제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반공국가의 검열 구조 속에서 아군 전사자를 기념하는 기억만이 공식 기억으로 인정받았으며, 따라서 전쟁을 경험한 인물은 반공의 이념을 구현하는 구도로만 문학에 등장할 수 있었다.<sup>33)</sup> 특히 여순사건 이후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빨갱이’의 범주

29) 김원일의 『겨울골짜기』에는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나 있으며, 『마을로 간 한국전쟁』(박찬승, 돌베개, 2010)은 마을공동체 내부의 전쟁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30) 『겨울 골짜기』에는 친족관계로 얽혀있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보호해가며 부역 문제에 대처하는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지만, 문학작품에 이런 마을의 형상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박완서의 『그산이 정말 거기있었을까』(웅진출판, 2005)에 이런 마을이 등장한다.

31) 박찬승의 저서에서 ‘툽질 전쟁’이라는 표현을 예로 제시한다. 박찬승, 위의 책 참조.

32) 김요섭, 『무덤 없는 자들』, 앞의 글 참조.

33) 한 사회의 영웅으로 기릴 수 있는 전사자만을 희생자로 기억하는 전쟁 관념에

를 유동적이며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누구나 빨갱이가 될 수 있는 현실, 그 낙인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언제든지 비국민이 될 수 있는 삶의 구조가 만들어졌다.<sup>34)</sup> 따라서 보도연맹원 예비검속이나 학살 문제, 또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대립 속에서 국군 점령기간 동안 일어난 학살 문제 등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한 사회였다. 냉전 반공사회의 서사는 검열의 구조 속에서 전사자와 희생자를 영웅화하는 논리로만 전쟁을 기념할 수 있었다.<sup>35)</sup> 게다가 1960년 4.19와 1961년 5.16 이후, 국군에 의한 학살 진상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가 좌절되고, 학살자의 묘비가 다시 제거되는 과정을 겪으며 절망과 원한은 침묵 속에 봉인된다.<sup>36)</sup> 1960년대 이후 냉전사회를 거치면서 전쟁의 트라우마는 확대 재생산되는 독특한 과정을 겪는다.<sup>37)</sup> 창작과정에서부터 자기검열이 작동하는 냉전사회적 검열구조로 인해 한국사회의 전쟁문학, 냉전문학의 양상은 일목요연하고 단일한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전쟁 관련 문학적 형상화의 문제는 1970년대로 오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빨갱이 아들이라는 낙인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이주하여 작가가 된 소설가들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기억 서사’로 소설화하여 냉전사회에 개입한다.

대해서는 강인철의 『전쟁과 희생』(역사비평사, 2019) 참조.

34) 김득중, 앞의 책 참조.

35) 이것은 독일 전쟁관련 서사문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전쟁문학의 논리이다. 강인철, 앞의 책 참조.

36) 한성훈, 앞의 책, 참조.

37) 1960-70년대 반공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더 강력하게 수행하기도 하면서, 전쟁의 기억을 당대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조작하는 경험까지 보태어져 트라우마의 양상은 더 커지는 경우도 생겨난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주제화한 박완서의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1989)에는 1970년대에 전쟁의 경험을 기억하는 양상이 잘 드러나있다.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공모’의식과 마음의 정치-1987년 이후와 박완서 소설의 1970년대 서사』, 『반교어문연구』37, 2014.8, 380-382쪽, 김동춘, 『전쟁정치 - 한국정치의 메카니즘과 국가폭력』, 길, 2013 참조.

빨갱이 아버지를 둔 탓에 소설가로서 겨우 생존할 수 있었다고 스스로 자각하는 소설가 이문구와 김원일의 등장인물이 시작점이다. 빨갱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등장시키는 1972년 이문구의 『일락서산』이나 1973년 김원일의 『어둠의 혼』은 자전적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 빨갱이 아버지를 통해 농촌 마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의 학살과 보복 학살의 역사를 사실처럼 재현한다.

『노을』은 『어둠의 혼』의 후속편인 듯, 주인공 갑수가 유년시절 고향 마을 진영에서 벌어진 학살사건과 그 주동자로 역할했던 빨갱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소설이다. 어린 갑수가 고향 진영에서 지내던 시간과 성장한 어른으로 서울에서 살고있는 갑수가 잠깐 방문한 ‘진영의 시간(과거)’이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교차함으로써, 갑수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구성하는 ‘진영’의 장소성이 구체화된다. 전형적인 귀향서사이다.

어린시절 고향을 떠나 고향을 잊으려 노력하며 살았던 갑수는 처음 귀향길에 들어서서 어릴 적 그곳에 살았던 과거의 시간을 마주한다. 그것은 가난과 굶주림, 백정이었던 아버지 폭력과 매질, 그리고 빨갱이 자식이 되어 마을에서 추방된 기억이다. 고향마을 진영에는 갑수가 해맑게 뛰놀던 어린 시절의 시간이 서려있기도 하지만, 결국 그 시간들은 아버지의 폭력과 학살, 어머니의 고통과 굶주림 같은 기억들에 지배당하는 고통의 시간이다. 고향마을 진영은 고스란히 주인공 갑수가 빨갱이 아들임을 증명하는 실물적 증거가 되는 장소로 되살려진다.

(가) 나는 무심결에 쇠전걸 뒤 어두운 들녘에 눈을 준다. 철하(철길 아래) 저쪽, 변전소에는 철탑마다 불이 환하게 켜졌다. 내 눈길이 그 변전소 오른쪽을 더듬는다. 여래천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거기, 끓는 더위가 어둠에 묻혀 있을 뿐이다. 그곳이다. 바로 거기, 스물아홉 해 전에 도수장이 있었다. 그해 여름, 꼭 이맘 때쯤, 거기에서 아버지와 삼촌과 추서방이 소를 잡았다.

“아버지, 빨리 가잖고 뭘 그렇게 보세요?”

현구가 내 팔을 끈다. 나는 잠시 동안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는다. 아니, 내 눈길이 무엇을 찾아내어 그 내용물을 헤쳐본다.

“아버진 배 안 고파요? 저녁도 굶었는데.” 현구가 기어코 배 고파다는 말을 꺼낸다.

나 역시 고향의 어둠과 무더위 속에 허기에 지친 두려움을 만나고 있었다.<sup>38)</sup>

(나) 길옆 풀을 차며 과수원 위쪽 동쪽길로 휘적휘적 돌아 내려가니 여래리 끝머리가 나선다. 갑득이와 내가 책보를 허리에 두르고 등교하던 길이다. 그때서야 금병산 위로 해가 이마를 내민다. 내 눈이 철길 아래쪽으로 옮겨간다. 여래천 방둑을 따라 늘어선 미루나무를 보자 나는 옛추억의 감회가 처음으로 마음을 적셔움을 느낀다. 높게 뻗어오른 미루나무는 여름 아침 햇살에 질푸른 자태가 자못 당당하다. 고향을 떠나 헤매어 산 이십구 년 동안 나는 꿈속에서 얼마나 많은 횃수로 저 방둑의 미루나무와 아버지를 만났던가 하는 감회에 젖는다. 꿈속에서 미루나무는 베개를 적시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늘 그때의 상처를 달래주었다. 어떤 때는 미루나무 잎새가 바람을 타며 풍금 소리처럼 들려주는 말이기도 했지만, 때론 그 미루나무 아래 피 흘리며 죽어가던 아버지가 들려주는 목소리기도 했다. “갑수야, 마 잇아뿌리라. 그 옛날 이바구는 잇아빨고 살거라. 자숙새끼한테 숨키빨고, 남은 평생을 읊던 이바구로 알고 살아라.” 사나운 짐승 같던 아버지도 꿈에서 죽을 땐 늘 그렇게 약해져 내 손을 잡고 애원했다. 그러다 깨어보면 미루나무도 여래천도, 아버지마저 없었고 내 몸은 식은 땀에 젖어 있었다.<sup>39)</sup>

『노을』의 주인공 갑수가 고향 마을에 들어서서 마주친 공간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장면이다. 인용문 (가)는 스물아홉 해 만에 찾은 고향에서, 지금은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선명하게 아버지의 일터였던 도수장을 떠올리는 장면이며, 인용문 (나)는 동생과 함께 학교 가던 길에 항상 마주치던 미루나무를 보면서 꿈속의 미루나무를 떠올리는 장면이다. 두 인용

38) 김원일, 『노을』, 문학과지성사, 1997, 28쪽.

39) 위의 책, 217쪽.

문 모두 그리워하며 꿈속에서도 떠올리던 어릴 적 기억이 서린 장소이다. 그러나 그 장소는 그리움과 동시에 “어둠”과 “허기”와 “두려움”도 같이 기억하게 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자식한테 숨기고 없던 일인 듯이 잊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망각(기억)의 장소이다. 아버지의 매질과 굶주림과 가난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이며, 소를 잡듯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 댓가로 피 흘리며 죽어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는 장소이다. 서술자 갑수에게 고향마을 진영은 빨갱이 아버지와 삶의 기억되는 장소이며, 빨갱이 아들로 낙인 찍혀 도망가듯이 떠난 곳이다. 즉, 현재의 갑수를 형성한 절대적 요소이며, 그 자체로 트라우마가 되는 공간이다. 스물아홉 해 만에 이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은 진영 고향마을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실체를 드러낸다. 『노을』은 금지되고 봉인된 빨갱이 아들의 기억, 그 기억이 펼쳐져 공개되는 담론장이며, 진영은 그 기억의 ‘실물’이다.<sup>40)</sup>

『어둠의 혼』에서 이미 논의했듯이, 1970년대는 빨갱이 아버지를 공식적인 담론장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였다. 그래서 버려진 아버지의 시체를 어찌지 못하고 분노와 두려움에 전율을 느끼는 상황이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도 ‘미학’이 성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든 인과적인 맥락으로, 합당한 처벌과 사회적 보상의 구조로 표현되는 순간, 미학적 가능성은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수께끼, 무덤없는 자의 아들, 분노와 무력감, 말할 수 없음 등, 권력구조와 사회적 금기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은 그대로 ‘실물적으로’ 구체화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음으로만 말해질 수 있는 트라우마의 장

40) “서술하는 이야기를 통해 회상이 장소가 고정되는 동안 이 회상의 장소는 트라우마적 장소라는 특징을 나타내면서 그 이야기가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의 서술은 개인의 심리적 억압이나 사회의 터부를 통해 방해받”(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454쪽)기 때문이다. 『노을』의 주인공이 돌아간 어릴 적 기억의 장소인 진영은 회상되는 순간, 이야기로 설명될 수 없는 트라우마적 장소로 드러난다.

소였다. 따라서 ‘언어’로 구체화되는 순간, 복잡한 상황은 단순화되고, 냉전사회의 폭력적이고 가혹한 양상을 낭만화/미화시킬 가능성이 극대화된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한 셈인데, 『어둠의 혼』과 달리 『노을』은 1970년대 냉전사회의 공적 담론장의 논리에 맞추어 허용된 범위 안에서 과거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완결해버린다. 빨갱이에 대한 사회적 검열망이라는 ‘현재(1970년대)’의 공론장<sup>41)</sup> 위에 1950년 한국전쟁 전후의 마을에서 벌어진 내부전쟁을 배치한 것이다. 즉 당대의 검열구조와 타협하는 방식으로 소설적 완성을 추구하는 동안에 빨갱이 아버지의 실상이라는 문학적 과제를 실현할 가능성은 점점 소멸되어 간다. 소설이 완성되는 순간, 소설이 이루고자 했던 미학적 과제는 실패하는 구조에 이른 셈이다. 『노을』이 반공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이 미학적 과제의 실패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과거가 상흔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은 현재적 고통이다. 고통은 윤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 속에 사건과 주체의 문제가 놓여있기에, 과거의 상흔은 현재의 고통이 되어 윤리적 주체를 구성한다. 빨갱이를 짐승처럼 버리고자 하는 사회, 혹은 짐승처럼 버렸던 사회, 그런 잔혹한 제거의 방식 앞에서 아무런 자의식이 없어도 상관하지 않는 사회. 전쟁기 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학살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적이지만, 미학적 가능성은 이런 삶의 상황에서 주체를 질문함으로써 성립한다. 『어둠의 혼』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말할 수 없음에 내재된 정동적 상황은 비록 어린아이의 서술 속에서지만, 윤리적 주체를 구성하면서 미학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빨갱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기억하고자 하는 『노을』의 서술자는 이 주체의 윤리적 문제를 대면하지 못한다. 기억하는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는 기억 서사의 형식 속에서 이 문제는 더 극대화되고 본격화되어야 할

41) 이 공론장은 검열이 작동하는 반공 냉전사회의 공론장을 의미한다. 임경순, 앞의 글 참조.

텐데, 기억하는 시점의 현실 논리에 맞추어 주체의 윤리적 문제가 삭제되면서 소설은 끝난다. 소설은 냉전사회 ‘검열’을 수용하는 안전한 길을 간 것이다.<sup>42)</sup>

1970년대 후반의 한국사회에서 한 시민으로 성장한 서술자가 1948년의 빨갱이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빨갱이를 본격적으로 실체화하는 『노을』의 작가 김원일은 「어둠의 혼」에서처럼 빨갱이 아버지를 따뜻한 아버지로 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소설은 1970년대의 공론장 구조와 타협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다시 기억하는 서사로 완결된다. 반공국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의 직업을 백정으로 설정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지만,<sup>43)</sup> 더 문제는 진영의 지역사를 변형한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반공국가의 공식 기억에 준하는 농촌의 삶, 마을공동체의 내부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의 실상과는 다른 역사적 상상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탄생한 『노을』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국가의 공적 기억을 계몽하는 반공문학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작가 김원일은 빨갱이 아버지를 공공연하게 정면으로 대면하는 방식의 소설 『노을』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 서사를

42) 이영진은 『애도의 정치학』 서문에서 “시간이 어긋나 있다”라는 『햄릿』의 탄식을 인용하면서 근대국가가 폭력적인 구조에서 만들어진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무명전사의 희생을 기념하는 방식이나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죽음을 마땅한 처벌인 듯이 처리하는 방식들이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이들에게 그 이점과 간극은 봉합되거나 ‘생각하기 좋은 것’으로 변형되어야”하는 선택이요, 그런 점에서 근대국민국가의 장치일 수 있다고 말한다. 시간이 어긋나있어, 죽음의 매듭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를 ‘생각하기 좋은 것’으로 변형하는 작업은 김원일의 빨갱이 아버지를 천박하고 폭력적인 백정출신의 광폭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영진, 『애도의 정치학』, 길, 2017, 18쪽. 김원일의 개작과 관련된 김요섭의 연구 참조.(본 논문 각주2) 참조)

43) 김원일/구모룡 대담, 「열정으로 지켜온 글쓰기의 세월」, 『김원일 깊이 읽기』, 36쪽 참조.

변주하면서 지속해간다. 『노을』의 개작과정을 통해 1978년판 『노을』에서 구축된 아버지의 형상과 진영의 장소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후 아버지 형상을 더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불의 제전』을 비롯한 진영 서사와 『노을』을 몇 차례에 걸쳐 개작한다. 즉 김원일은 과거의 상흔으로 기억되는 아버지라는 존재와 진영이라는 공간을 공적 기억이라는 현실에 맞추어 실체화한 것을 ‘개작’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수정한다. 작가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개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경우에도 개작은 이루어진다.<sup>44)</sup>

1987년 민주화 이후 민간인학살 문제를 들춰내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빨치산들을 다룬 소설 『겨울 골짜기』를 발표하며, 1994년 『겨울 골짜기』를 개작하여 개정판을 내고, 1987년, 1997년 『노을』을 개작하여 개정판을 내는 등 검열을 의식하여 역사적 정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대거 수정하는 작업을 이어간다. 이런 재창작, 혹은 개작과정을 거치면서 김원일의 빨갱이 아버지와 아들의 서사는 한국사회 냉전구조의 변화와 긴밀히 연동되는 방식으로 꾸준히 변화해간다.

빨갱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남북이 대결구도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정치 하에서는 허구적 상상력의 영역에서라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친밀성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구축될 수 없다. 누구보다도 생존의 문제가 절대적이었던 김원일은 이 영역을 절대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이었다.<sup>45)</sup> 아버지에 대

44) 김원일 소설에 대한 개작 연구는 최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작품인 경우에 여러 번 개작되기도 하고, 인물이 성격이 달라지는 정도로 개작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주의자의 성격이나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찬모, 김요섭, 김명훈 앞의 글 참조.

45) 2004년 이룸 출판사에서 출간한 『겨울 골짜기』에는 책 끝에 유일하게도 “불러 보고 싶은 말, 아버지”라는 후기가 실려있다. 『겨울 골짜기』는 빨치산들의 이야기이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창작한 소설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황석영이 말한 바처럼, 아버지의 기억을 갖고 있는 좌익 2세들이 부재하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문학을 통해 긍정적으로 형상화된다고 한 것은 김원일의 경우에 적절한



한 기억을 왜곡하는 비겁한 방식이 되더라도 엄혹하고 폭력적인 냉전의 정치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소설화한다. 그러나 냉전국가의 현실 논리와 ‘타협’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냉전정치를 겪어가는 과정은 창작에 그대로 반영되어, 개작과 반복서사로 이어진 것이다.

1990년대는 한국사회가 탈냉전의 정치구조 속에서 요동치는 시기였기에, 소설가로서 김원일 역시 가장 급진적으로 많은 것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인혁당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시기를 지나면서 정치적 변화로 인해 개개인들이 삶을 다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인혁당 사건을 사실적으로 소설화 한 『푸른 혼』은 냉전 정치상황의 현재 시점에 맞추어 빨갱이 아버지를 소설화했던 김원일에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작품이다.<sup>46)</sup>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 김원일은 적어도 남한 내에서 활동했던 남로당 공산주의자의 활동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남로당 빨치산으로 월북했던 아버지의 삶을 본격적으로 한 인간의 삶으로 조명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인식의 판’, ‘공론장의 구조’가 생겨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2013년, 『아들의 아버지』는 한국사회의 냉전 정치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김원일의 상상력이 만든 아버지 서사의 완결편으로 탄생한다.

---

해석이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경험을 소설화한 몇 편의 소설에도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절절히 드러난다.(『비단길』, 문학과지성사, 2016)

46) 김명훈은 『푸른 혼』이 실제 인혁당 사건을 사실 그대로 구성하기보다는 북한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각색된 측면이 있지만, 이 각색은 의미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들어 김원일의 서사적 의도를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명한다. 김원일의 사회주의자 아버지 서사기 계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관점으로 평가할 만하다. 김명훈, 앞의 글, 164-173쪽 참조.

#### 4. 나오는 말

김원일은 좌익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한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후기나 서문을 달고 빨갱이, 빨치산, 사회주의자를 소설에 등장시킨 작품을 여러 편 쓴다. 『어둠의 혼』, 『노을』, 『불의 제전』, 『아들의 아버지』 네 편의 아버지/아들 서사가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다룬 소설이라면, 『겨울 골짜기』나 『푸른 혼』은 빨치산,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혹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받기 위한 마음으로 창작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1966년부터 시작된 김원일의 작가로서의 창작과정에는 이 아버지/아들 서사가 강렬한 한 축을 형성한다. 이 소설들은 빨치산, 사회주의자였던 한 인간의 입체적인 모습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작과 재창작, 혹은 개작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도 아버지에게 ‘아버지(인간)’의 모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 서사의 창작과 개작과정은 김원일 스스로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김원일이 성실하게 꾸준히 아버지 서사를 지속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아들, 자신의 서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검열이라는 냉전사회의 창작 구조를 비겁한 방식으로 수용하는 극히 현실적인 생존의 시간이었다. 좌익 2세의 운명이며, 현실일 것이다. 김원일은 모욕적일 수도 있는 빨갱이 아들로서의 삶을 부정하거나 벗어나지 않고 탈/냉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삶의 영역을 착실하게 넓혀가면서 아버지/아들 서사를 진실에 육박하도록 확대해나간다. 비겁하지만, 처절한 생존의 논리가 관통하는 엄연한 창작의 과정이어서 쉽게 재단하지 못하는 깊이와 진정성을 발견하게도 된다.

이 서사적 과정의 완결점은 2013년에 발표한 『아들의 아버지』이다. 이 소설은 한국사회의 탈/냉전의 정치가 감각된 결과물인 듯이 사회주의자, 빨치산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아버지의 일대기 같은 작품이다. 이 논문이 살펴본 『아들의 아버지』 이전의 과정은 이 작품으로 귀결되어 ‘아

버지/아들 서사'를 완성하는 계보를 구성한다. '사실기록의 방법'이라는 형식으로만 아버지를 언어화할 수 있다는 '기억 서사'의 불가능성에 대한 미학적 선택으로 보인다. 『아들의 아버지』가 취하는 다큐멘터리적 서술과 형식의 문제는 이후 연구를 통해서 구체화하고자 한다. 아버지/아들 서사의 완결편에서 사실 기록의 방법을 취하는 형식적 시도는 냉전 사회와 소설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원일, 『연』, 나남출판, 1985.
- 김원일, 『노을』, 문학과지성사, 1978.
- 김원일, 『노을』, 문학과지성사, 1997.
- 김원일, 『불의 제전』 1-7, 문학과지성사, 1997.
- 김원일, 『겨울골짜기』, 이룸, 2004.
- 김원일, 『푸른 혼』, 이룸, 2005.
- 김원일, 『아들의 아버지』, 문학과지성사, 2013.
- 김원일, 『비단길』, 문학과지성사, 2016.
- 김원일, 『사랑하는 자는 괴로움을 안다』, 문이당, 1991.
- 김명훈,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문학적 증언’의 미학과 윤리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8.
- 김명훈, 「‘학살은 재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역사화하기」, 동악어문학 79집, 2019.
- 김미정, 「‘소년은 왜 꽃핀 쪽’으로 가라고 말하는가 - ‘기억-정동’ 전쟁의 시대, <소년이 온다>가 놓인 자리」, 『민주주의 증언 인문학』, 앨피, 2004, 129-158쪽.
- 김요섭, 「김원일 현기영 소설의 학살서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7.
- 김요섭, 「무덤없는 자들 - 임철우·문순태 소설의 매장 모티브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82집, 2020, 79-104쪽.
- 김주연, 「모자관계의 소외/동화의 구조」, 『마당깊은 집』, 문학과지성사, 1988, 309-321쪽.
- 김형중, 「문학과 증언 : 세월호 이후의 한국문학」, 감성연구 12집, 2016.3.
- 박찬모, 『겨울 골짜기』의 개작 양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41호, 2010.

257-285쪽.

- 류보선, 「어둠에서 제전으로, 비극에서 비극성으로」, 『작가세계』, 1991. 여름, 18-50쪽.
- 문순태, 「상치의 기억과 공동체적 삶」, 현기영 외, 『기억과 기억들』, 쌤 크스마트, 2017, 85-137쪽.
- 서영채, 「신경숙의 『외딴방』과 1990년대의 마음」, 문학동네, 2017.봄, 578-611쪽.
- 양진오, 「좌익의 인간화, 그 문학적 방식과 의미」, 『우리말글』35, 우리말 글학회, 2005.
- 이봉범, 「냉전과 월북, (남)월북의제의 문화정치, 역사문제연구 37호, 2017, 229-294쪽.
-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공모'의식과 마음의 정치-1987년 이후와 박완서 소설의 1970년대 서사」, 『반교어문연구』37, 2014.8, 372-400쪽.
- 이혜령, 「빨치산과 친일파, 어떤 역사 형상의 종언과 미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00집, 2017.12.
- 임경순, 「70년대 문학검열의 작동방식과 문학의 두 얼굴」, 한국문학연구 49집, 2015.12.
- 정근식,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권 2호, 2013, 347-394쪽.
- 표인주,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죽음 처리와 의미화 과정」, 『전쟁과 기억』, 한울아카데미, 2005.
- 한수영, 「분단과 전쟁이 낳은 비극적 역사의 아들들」, 『소설과 일상성』, 소명, 2000.
- 황석영, 「질은 보라색 하늘」, 『황석영의 한국명단편 101』4권, 문학동네, 2015, 336-334쪽.
- 황정아, 「'결을 거슬러 역사를 솔질'하는 문학」, 『안과밖』, 2015.4, 58-79쪽.

- 권헌익, 『학살, 그 이후』, 아카이브, 2012.
- 권헌익,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 강인철, 『전쟁과 희생』, 역사비평사, 2019.
- 구모룡, 『김원일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2.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 2013.
- 김동춘, 『전쟁정치 - 한국정치의 메카니즘과 국가폭력』, 길, 2013.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 김무용,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 소명출판, 2013.
- 김종엽, 『분단체제와 87년체제』, 창비, 2017.
- 노용식, 『박희춘, 1933년 2월 26일생』, 눈빛, 2005.
-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 서영채, 『풍경이 온다』, 나무나무출판사, 2019.
- 이문구, 『나의 문학이야기』, 문학동네, 2001.
- 이영진 외, 『애도의 정치학』, 길, 2017.
- 한성훈, 『가면권력』, 후마니타스, 2014.
- 황석영, 『황석영의 명단편 101』, 문학동네, 2015.
- 악셀 호네프,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 알아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 조르주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03.
- 지그문트 바우만,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 허버트 허쉬,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책세상, 2009.

<Abstract>

## Cold War and the Form of Novel, the Place of ‘Jinyoung’ and Socialist Narrative

Lee, Sun-Mi\*

Kim Won-il had a hard time living due to his father who fled North Korea while working on partisan activities. This fact has always influenced Kim Won-il's life. Several novels reflect this autobiographical fact. <The Soul of Darkness> is the story of a son who must turn away from his deceased father. Because of censorship in the 1970s, <Sunset> sets his warm father as butcher. These novels are censorship-conscious and reconcile the facts. Due to the political changes of the post-Cold War, the father is represented realistically in the novel. <The Son's Father> openly records the socialist father's biography. It is not a documentary, but it is intended to record the real life of his father in a composition that seems to be a novel. Kim Won-il expresses his father as much as possible in the censorship of the Cold War society. Through adaptation, the facts related to the father are corrected. This paper is a study of this process.

Key Words: cold war, father/son narrative, <The Soul of Darkness>, <Sunset>, <The Son's Father>, Jinyoung, socialist

---

\* Kyungnam University

■ 논문접수 : 2021년 3월 31일

■ 심사완료 : 2021년 4월 16일

■ 게재 확정 : 2021년 4월 20일